

한국 이혼율 세계 3위

백년가약(百年佳約)이란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혼하는 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01년 이혼건수는 13만 5천건으로 전년보다만 5천건이 늘어났다. 하루 평균 370쌍이 이혼한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구 천명당 2.8쌍이 갈라지면서 이혼율이 OECD 회원국중 미국(4.2쌍), 영국(2.9쌍)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이혼율은 2.5쌍으로 OECD 국가중 8위를 기록했었다. 한국의 이혼율은 이웃나라인 일본(2.3쌍)이나 노르웨이(2.1쌍), 스웨덴(0.9쌍)보다 훨씬 높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0.2살, 여자가 36.7살로 90년에 비해 남자는 3.4살, 여자는 4.0살 높아졌다. 이는 15년이상 장기동거 부부의 이혼이 9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50대이상 부부의 황혼(黃昏)이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비율은 11.3%로 10년 사이에 3배가량 크게 늘어났다.

50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노부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70세 할머니가 수십년간 첩을 두고 살면서 자신을 무시해온 69세 남편과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뒤늦은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이사건을 맡은 서울 가정법원은 "두사람은 이혼하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전체재산의 4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중반부터이다. 얼마 전까지는 가부장적 남편 밑에서 주눅들어 지내던 할머니들이 말년에 자유롭게 살겠다고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실추된 가족내 위치나 가족들의 따돌림등을 참지못해 결별을 선택하는 '할아버지의 반란'이 늘고 있다. 늙어갈수록 가족들이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 심한 소외감을 느낀 나머지 할아버지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혼이혼이란 말이 등장한 초기엔 60대 이상의 이혼소송 10건가운데 9건은 부인쪽에서 제기한 것이었으나 요즘엔 남녀 비슷한 비율로 이혼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이혼을 사유별로 보면 부부간의 불화에 따른 이혼 비율이 90년에는 전체이혼의 85%에서 지난해에는 74%로 줄어든 반면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은 2.0%에서 11.6%로 6배나 증가했다.

이처럼 이혼자수가 급증하자 이들을 상대로 한 업소도 생겨나 성업중이라고 한다. 이혼했거나 사별한 독신자만 엄격하게 가려서 출입시킨다는 사교클럽이 바로 그것이다. '재혼자 전용 고품격'이란 재혼중매 전문업소가 독신자들로부터 큰호응을 받고 있다니 요즘 세태를 꿰뚫은 비즈니스 감각만은 탁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혼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자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하원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의 조 스웨덴(Sweeden) 의원은 “연방 자금을 끌어들이 부부 클리닉과 신혼부부 교육등 프로그램을 확충해 이혼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스웨덴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데이브 브로케이(Brockway)등 이혼율을 거론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오클라호마주의 정치인들은 연방과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면 2010년까지 현재의 이혼율을 3분의 1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이혼율 문제가 미국의 지방정치 무대에서만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3억 달러의 예산을 결혼강화 프로그램에 쏟아붓는 법률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 부부 평균 3쌍에 한쌍 꼴로 10년안에 헤어지는 사태가 급기야 정부의 개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한국도 머지않아 이혼율 문제를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인들을 보게될지 모른다.

모든 이혼이 가족의 해체나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혼한 사람들이 모두 인생의 실패자나 낙오자도 아니다.

다만 첫 번째 결혼에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인 상실감과 좌절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혼이 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여성의 경제력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의식이 깨이고 취업기회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참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여성들의 입장을 배려한 법개정과 성개방, 향락문화,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해진 생활환경, 이혼에 대해 보다 관대해진 일반인들의 시선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혼한 사람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시각은 옹지 않다. 다만 무작정 참고 살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해체가 자녀들에게 더욱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자녀 양육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자녀 양육 시설등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가장 큰 희생자일수 있는 이혼 가정 자녀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7]

모든 이혼이
가족의 해체나
가정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혼한 사람들이
모두 인생의 실패자나
낙오자도 아니다.
다만 첫 번째 결혼에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인 상실감과
좌절감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고통과
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심각하다.



이광호 · KBS 해설위원